

타이, 에틸렌 주요 수출국 부상

석유화학 확대 프로젝트 봇물 ... TOC는 에틸렌 30만톤 이상 증설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의 피크기 진입 전망과 함께 타이 수요강세 전망이 제기되면서 타이 지역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Thai Olefins(TOC)은 2003년 대규모 플랜트 확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선 2005년 초까지 Map Ta Phut 에틸렌(Ethylen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30만톤에서 68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2006년 초부터 EG(Ethylene Glycol)을 시작으로 에틸렌 유도제품 플랜트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TOC의 에틸렌 및 EG 생산능력 확대규모로 볼 때 타이는 이미 에틸렌 공급과잉이 우려되나 앞으로 주요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OC는 2003년 IOP(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지분의 18.13%를 매각해 Map Ta Phut 에틸렌 프로젝트 자금으로 71억바트(1억8100만달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의 TOC 지분은 63.03%에서 44.9%로 줄었으며 다른 타이 석유화학기업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TOC는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화학기업으로는 최초로 방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타이의 석유화학 생산능력 전망

(단위: 1000M/T)

구 분		현 재	계 획	완공시기
Aromatics(Thailand)	벤 젠	330	137	2004
	P-X	394	101	2004
Siam Mitsui PTA	PET	-	100	2004
	PTA	800	*600	2005
Thai Olefins	에틸렌	385	300	2005
	E G	-	300	2006
National Petrochemical	HDPE	-	250	2004
	P P	-	**300	2007

* 10만톤 확장 계획(2004년 완료) 및 50만톤 플랜트 건설(2005년 완공)

** 미확정

국영기업인 PTT도 2003년 PP(Polypropylene) 프로젝트에 참여할 파트너기업 물색에 나섰으며 PTT가 지분의 37.9%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National Petrochemical이 PP 플랜트 건설을 담당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Siam Cement의 자회사 Cenemthai Chemicals 및 Mitsui Chemicals이 합작으로 설립한 Siam Mitsui PTA는 Map Ta Phut에 3차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플랜트를 건설하고 기존의 2개 PTA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Siam Cement는 동남아 석유화학기업 인수 및 중동 합작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들어 6년 동안 중단했던 인도네시아 Tuban의 Aromatic 프로젝트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Siam Cement는 2003년 4/4분기 석유화학 부문 매출액이 총 133억바트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3억바트로 무려 65% 증가했다.

<화학저널 2004/05/12>